

# 글로벌 시장 휩쓴 기아... 해외 누적 판매 5000만대 돌파

매년 글로벌 평균 270만대 이상 판매  
전체 비중서 해외 판매 70% 이상  
환경차까지 차종별 폭넓은 인기

기아가 1962년 우리 나라 최초 삼륜차 'K-360'을 출시후 59년만에 누적판매 5000만대를 돌파했다.

3일 기아는 지난 5월까지 국내 1424만581대, 해외 3587만9531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5012만11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2003년 글로벌 판매 1000만대를 달성했고, 2010년 2000만대, 2014년 3000만대, 2017년 4000만대에 이어 4년만에 5000만대 고지에 올라섰다.

2010년 처음으로 연간 글로벌 판매 대수가 200만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글로벌 평균 27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수출 및 해외 현지 판매가 전체 판매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브랜드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탄



기아가 1962년 우리 나라 최초 삼륜차 'K-360'을 출시후 59년만에 누적판매 5000만대를 돌파했다.

탄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6년 연속 연간 5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기아의 대표 스테디셀러인 쏠렌토와 카니발이 올해 매달 6000대 이상씩 꾸준히 팔리고 있으며 새로운 세단 모델 K8은 사전계약 대수가 연간 판매목표 8만대의 30%인 2만4000여대

로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도 사전예약이 3만대를 넘는 등 친환경 차까지 차종별로 고른 인기를 보이며 작년에 기록했던 국내시장 최대 판매 기록 55만2400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시장은 기아 최초로 글로벌 누

적 판매 600만대를 돌파한 스포티지를 대표로 쏠렌토, 카니발 등 RV 차종이 판매를 이끌었다.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등 해외 현지 시장에서의 SUV 판매도 꾸준하다. 텔루라이드는 2019년 3월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 18만대 이상 판매됐고, 셀토스는 2019년 8월 인도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17만대 이상이 팔리며 기아 인도판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모델별로는 준중형 SUV 스포티지가 614만대라는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지는 해외에서만 538만대 이상이 팔리며 기아 최초로 글로벌 누적판매 600만대를 넘어섰다. 이어 1987년 출시해 소형차급 대표 모델로 큰 인기를 끈 프라이드가 392만대로 2위에 오르고 쏠렌토(370만대), 모닝(340만대), 봉고(320만대)가 뒤를 이었다.

한편 기아는 글로벌 누적 판매 5000만대 달성을 기념해 고객 대상으로 특별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월 한 달 간 기아 전시장 방문한 고객들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 에어컨 1명 ▲씨마크호텔 숙박권 2명 ▲닌텐도 스위치 링피트 5명 ▲GS칼텍스 상품권 50명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200명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100%)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응모 고객 중 5000명을 추첨해 차량 계약 시 사용 가능한 계약금 지원 10만원 쿠폰을 지급하며 차종별로 다양한 판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내주시는 성원 덕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00만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훌륭한 품질과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이노, 코로나에 사회적 가치 창출 감소

3908억 줄어든 -2192억 시현  
환경오염 배출 저감 등 성과 개선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한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SV)를 측정할 결과 2019년 기록한 1717억원보다 3908억원 줄어든 -2192억원을 시현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일 이와 관련 SK 그룹 계열사들이 매년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사회성 ▲사회공헌, 기부, 봉사활동 등을 측정한 사회공헌 사회성 ▲고용, 배당, 납세 등을 평가하는 경제간접 기여성과 등 세 분야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액은 감소했지만, 세부항목 중 ▲환경오염 배출 저감 ▲고용 ▲사회공헌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 성과는 개선됐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배터리·소재 사업 등 친환경 사업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기존 석유·화학 사업은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증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지난해보다 1184억원 개선된 1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비즈니스 사회성과 중 환경 영역은 1123억 개선됐다.

SK이노베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가동량 감소가 환경 성과 개선에 큰 영향을 줬지만, ▲스팀 사용 효율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신설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제품·서비스는 기존 친환경 제품인 일시적 수요 감소에도 동물용 Oil Spray, 고기능성 아스팔트 등의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전년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사회성과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 374억원

성과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사회 안전망 강화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 육성 ▲베트남 및 미얀마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진행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2019년 베트남 친환경 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일회성 기부금 348억원이 지난해 제외되면서 전년 대비 성과가 소폭 낮아졌다.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전년보다 약 4700억원 줄어 전체 성과에 영향을 줬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배당을 하지 못했고, 납부한 세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고용 부분 성과는 대폭 개선됐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지속한 결과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2년간 고용인원을 약 1300명 늘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LG전자 오픈소스 SW관리 도구, 외부에 공개

‘포스라이트’ 소스코드 개방

LG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포스라이트’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라이트는 개발자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오픈소스를 사용했는지, 오픈소스 사용 조건이나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증한다. 또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등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스라이트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개발자라면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외부에 공개하는 포스라이트를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

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포스라이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라이트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외부 개발자가 이 도구를 사용하고 남긴 피드백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안정성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국제표준규격인 ‘ISO/IEC 5230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의 표준 준수 기업으로 등록됐고, 비영리 단체인 리눅스재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준수를 위해 오픈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 삼성전자, 더 가벼워진 ‘비스포크 슬림’

무선청소기 라인업

삼성전자 무선 청소기가 더 가벼워진 다. 삼성전자는 3일 비스포크 슬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슬림은 높은 성능에 감각적인 디자인, 슬림한 무게까지 3가지 장점을 충족한 삼성전자 무선청소기에 새로운 라인업이다.

흡입력은 150와트다. 삼성 독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통해서다. 삼성전자는 모터 구조와 제조 관련 독자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으며, 기존 등급 모델 대비 최대 회전 속도

를 20% 이상 개선했다. 평생 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슬림 소프트마루 브러시’도 분당 최대 1500회 회전하며 벽면 틈새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브러시 안쪽 드럼에는 은사 소재를 적용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배터리도 무게와 부피를 줄이면서 용량을 최적화한 제품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 모드 사용시 최대 5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셀프 스탠딩 구조도 새로 적용했다. 별도 거치대 없이도 세워놓을 수 있는 구조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캘리그래피 부채 증정 이벤트

제주항공은 3일 매주 토요일마다 기내 특화서비스팀인 ‘일리스타’ 팀이 출동해 즉석 캘리그래피 부채를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비행기 창문 모형의 부채 위에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즉석에서 캘리그래피로 꾸며 식사를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16일과 30일에는 현장에서 식사를 드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운빨로맨스’ 팀원들의 타로 운세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수지 기자

한국선진학교·부성초등학교

현대위아가 초등학생들의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경기도 안산시 위치한 한국선진학교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부성초등학교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선정해 학교 부지에 숲을 꾸렸다고 3일 밝혔다. ‘현대위아 초록학교’는 현대위아의 ESG 활동 중 하나로 학교 곳곳에 숲을 꾸며 학생들이 깨끗한 자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현대위아는 앞서 경상남도 창원시의 남양초등학교와, 경기도의왕시의 덕성초등학교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조성한 바 있다.

현대위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지



현대위아가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선정해 꾸민 경기도 안산시 한국선진학교의 모습. /현대위아

적장에 특수교육지원인 한국선진학교 내 총 600㎡의 공간에 ‘희귀식물 정원’과 ‘온실 텃밭’, ‘포켓 정원’ 등을 조성했다. 우선 ‘희귀식물 정원’에는 꽃창포, 백리향, 용머리와 같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우리나라의 희귀식물을 심었다. /양성운 기자